

부산국제영화제 “코로나 악화되면 취소...온라인 개최 안해”

2주 연기...내달 21~30일 개최 예정
68개국 총 192편 5개 스크린서 상영
올해 개막작은 ‘칠중주: 홍콩 이야기’
“오프라인 어려우면 내년으로 넘길것”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주 연기돼 개최되는 가운데, 추석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4일 온라인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행사 관련 개요 및 상황 등을 전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년보다 2주 연기해 열리며, 68개국 총 192편의 상영작이 영화의전당 5개 스크린에서 상영된다.

이용관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1단계 상황에 맞춰 정상 개최를 준비해왔지만, 8월 중순 이후 상황이 급변하면서 영화제 개최를 두고 한달간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추석이라는 큰 변수

가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2주 연장해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면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면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영화제는 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칸 영화제의 입장과 유사한데 저작권 문제나 감독들의 의사 존중, 관객들 존중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온라인에 미련을 갖지 않고 사태가 더 나빠지면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화제의 최종 개최 여부

는 추석 이후 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고민해봐야 하는데 최종적인 시안은 10월 중순, 15일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영화 상영과 관객들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 자세라는 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상영작도 예년보다 줄어 들었다. 기존에 300여편이 상영됐지만, 올해는 100여편이 줄어든 192편이 상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상영관도 축소해 운영된다.

전양준 집행위원장은 “스크린 수가 모자라서 지난해처럼 영화당 2-3회 상영은 어렵고 평균 1회씩 상영할 예정”이라며 “아외에서 열리는 개·폐막식은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활동은 올해 사정상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작 소개 및 관객과의 대화 등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선보이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수는 줄었지만, 거장들의 작품이나 화제작 등 주목같은 작품은 많다고 설명했다.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는 “예년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수다. 거장 감독들의 영



화가 대거 초청됐고, 영화제 화제작들도 소개된다”면서 “칸 영화제가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고 선정작만 발표했는데 그 56편 중 23편을 상영하기로 했다. 베니스 영화제의 따끈한 신작들과 선댄스 영화제 수상작 등도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개막작은 ‘칠중주: 홍콩 이야기’로 흥분, 허안화, 조니 토 등 홍콩의 전설적인 감독 7명이 ‘홍콩’을 주제로 한 오피스 영화가 선정됐다. 최근 홍콩 사태 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홍콩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설명이다.

폐막작은 타무라 코타로 감독의 애니메이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다.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2003년 이누도 잇신 감독의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킹한 작품이다.

칸 영화제 선정작 중에서는 연상호 감독의 ‘반도’는 물론 가와세 나옴 감독의 ‘트루 머더스’,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 복원판, 배우 비고 모텐슨의 감독 데뷔작 ‘풀링’, 디즈니와 픽사의 새 애니메이션 ‘소울’ 등이 상영된다.

또 올해 선댄스 영화제의 심사위원

대상 및 관객상을 받은 ‘미나리’도 상영된다. 한국계 감독 리 아이작 정이 연출하고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이 출연한 작품이다.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인 ‘운디네’와 황금곰상을 수상한 ‘사탄은 없다’, 베니스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스파이의 아내’ 등도 초청됐다.

한국 영화는 데뷔작으로 주목을 받았던 감독들의 귀환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상영관 전 좌석을 온라인 예매를 통해 판매하며, 매표소 운영 및 현장 판매는 하지 않는다. 예년에 800여명이었던 자원활동가도 대폭 축소해 자체 스태프 130여명 정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남 수석 프로그래머는 “100% 예매 및 모바일 티켓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 경우 전자출입명부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극장 운영은 방역 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아시아프로젝트마켓, 포럼 비프, 아시아필름어워즈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물란·아웃포스트 개봉...‘테넷’ 흥행 이어갈까

‘물란’, 내일 국내 극장 개봉·‘아웃포스트’, 23일 개봉



할리우드 대작 ‘물란’과 ‘아웃포스트’가 이달 잇따라 한국 관객과 만난다. ‘테넷’의 바통을 이어받아 얼어붙은 극장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디즈니 블록버스터 실사영화 ‘물란’은 17일 국내 극장 개봉한다.

예초 지난 3월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번 일정이 미뤄졌고, 결국 미국에선 극장 대신 자사 온라인 서비스(OTT)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됐다.

영화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물란이 가족을 위해 여자를 숨기고 잔인무도한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병사가 되어 위대한 전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중국 남북조시대 여성 영웅 이야기를 다룬 동명 애니메이션(1998)을 실제로 옮긴 작품으로 중화권 스타 류이페이(유여비)를 주연으

로 내세워 총 제작비만 2억 달러(약 2381억원)가 들었다.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전투신이 압권이라는 평가다. 말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고, 검을 휘두르는 액션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니키 카로 감독은 “물란을 연기한 유여비에 대해 ” 그녀가 보여준 뛰어난 액션에 모두 입이 떡 벌어졌다”고 극찬했다.

국내에서는 아이맥스(IMAX)부터 스크린(Screen)X, 4DX, 돌비 시네마까지 다양한 포맷의 개봉을 확정했다.영화의 거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액션을 생생하게 전달해 관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관한다. 주연 배우의 흥공경쟁 지지 발언 등으로 촉발된 보이콧 움직임은 변수다.

우여곡절 끝에 배일을 벗은 뒤 논란은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을 탄압했

다는 비판을 받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엔딩크레딧을 통해 공안에 감사를 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정당화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예초 이 영화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시장인 중국을 겨냥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디즈니 입장에서는 개봉 초기 흥행 성적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공개한 중국에서도 개봉 첫 주말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을 거뒀다. 개봉 첫 주말 3일 동안 232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 한 주 앞서 개봉한 영화 ‘테넷’(3000만 달러)에 크게 밀렸다.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시장인 중국을 겨냥해 만든 점을 감안하면 오프닝 결과는 실망스럽다 게 중론이다.

전쟁실화 영화 ‘아웃포스트’는 할리우드 화제작 중 유일하게 추석 시즌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는 CNN 앵커이자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집필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방어 불가능한 전조까지 사수라는 단 하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몰려드는 적들과 맞서는 병사들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 다.

배우 올랜도 블룸, 스티븐 이스트우드, 케일럽 랜드리 존스 등이 출연하고, ‘스트로우 독스’ ‘더 트루스: 무언의 제보자’ ‘더 첩보: 분노의 주먹’의 로드 류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23일 개봉.

임창정, 새 타이틀곡 위해 ‘탑백(TOP100) 귀’ 모집

배우 겸 가수 임창정이 올가을 열여섯 번째 정규앨범으로 돌아온다.

14일 소속사 에스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임창정이 오는 10월19일 정규 16집을 발매한다. 탑백(TOP100) 귀를 가진 타이틀곡을 모집해 타이틀곡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창정은 꾸준히 정규앨범으로 리스너들을 만나며 각종 음원사이트를 장악한 바 있다. ‘내가 저지른 사랑’,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십삼월’ 등 ‘임창정표 발라드’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컴백 소식과 함께 임창정은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특별 이벤트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임창정은 TOP100 귀를 가진 사람들을 정규 16집 타이틀곡 선정단으로 발탁한다.

뽑힌 이들은 정규 16집을 누구보다 먼저 듣고 타이틀을 선정할 수 있는 영광을 안게 된다.

신청 방법은 임창정의 곡으로 ‘나만

의 플레이리스트’를 찌다면 넣고 싶은 노래 10곡을 선정한 후 이유와 함께 20일까지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들과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예정이다.

타이틀 선정 행사는 25일 오후 5시 에스아이엔터테인먼트 파주 사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될 계획이다.

방심위, ‘프로듀스’ 시즌4까지 과징금 1억2천만원 부과

문자 투표 결과 조작 혐의

케이بل TV방송 엔트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각각 과징금 3000만 원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8월10일 열린 제15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엔트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의 과징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4개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를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해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000만원)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과징금 3000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8월24일 열린 제16차 전



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홍소필 판단체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000만원)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과징금 3000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이 과와 가격 과 영양성분이 상이한 열대과일인 스

타에플을 원료로 한 과채주스 ‘ABC 주스’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이용해 제조한 것처럼 판매한 것은 기만의 정도가 심각하지만, 유사 방송을 송출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BJ 세야 “故 박소은에 평생 미안함 가지고 살겠다”

故 박소은 사망 이후 약 두 달 만에 복귀

아프리카 및 유튜브 BJ 세야가 故 박소은 사망 이후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가 약 두 달 만에 복귀해 심정을 밝혔다.

BJ 세야는 지난 14일 자신의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늘에서도 피해 받고 있는 그 친구(故 박소은)에게 정말 죄송하다. 너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불편을 끼친 시청자분들, 팬분들, 그 친구와 가족들 팬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세야는 “가족분들께서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오늘 이후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며 “지난 7월 4일 해명 방송 전 저는 그

친구와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해당 일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슈화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범주를 일으킨 행동으로 하늘에서도 피해 받고 있는 그 친구(故 박소은)에게 정말 죄송하다. 너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 일 이후 방송을 하지 않았던 건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친구 이름이 또 기사화되고 알려지는 것이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못했다. 내가 잘한 행동은 하나도 없다. 모두 내 잘

못된 행동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그 친구에게 평생 미안함을 가지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BJ로 활동했던 박소은은 지난 7월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의 사생활 폭로 글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폭로 내용에는 BJ 세야의 이름도 언급됐으며, 세야는 이를 즉시 해명했지만 해당 글로 인해 박소은은 악성 댓글 테러에 시달렸다.

박소은을 향한 ‘악플 테러’는 지난해 공개 연애 사실을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박소은은 여러 차례 고충을 토로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박소은의 사망 소식은 그의 친동생이 박소은의 아프리카 계정 게시판에 올리며 알려졌다.